

서 수도하던 도승이 수도를 마치고 타고 갈 말을 무쇠로 만들어 바위에 세워 두었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sup>793</sup>

### 제3절 부도와 석탑

#### 1. 부도(浮屠)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墓塔)으로 승탑, 사리탑, 부두, 포도, 불도 등 이라고도 한다. 부도의 종류로는 팔각원당형, 석종형, 방형, 석탑형 등이 있다. 팔각원당형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화려한 부도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석종형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장 보편적인 부도로 건립되었다.

울진 지역의 부도는 4곳의 사찰에 7기의 부도가 유존하고 있는데, 이중 불영사 양성당부도가 가장 돋보이며, 그 다음이 대흥사지 부도이다. 이 부도만 보아도 울진지역에서의 불영사의 사적 영향은 대단하였다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존하는 모든 부도가 조선시대에 제작되었으며, 양식도 석종형 부도로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고, 시대가 내려올수록 제작수법이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시대 석탑에서 볼 수 있었던 불교문화의 융성함이 점차 쇠퇴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도뿐만 아니라 다른 석조물에서도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 국가의 숭유억불정책의 영향으로 불사를 일으키는 등 불교의 외형적인 발전보다는 사찰 내에서의 내재적인 진척만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라 하겠다.

793.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위 책, 284쪽

&lt;표 66&gt; 울진군의 부도

부도	지역	시대	형태	비고
불영사 부도	금강송면 하원리	조선 전기(1696)	석종형	양성당 부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2호
대흥사지 부도	울진읍 대흥리	조선 후기(1818)	석종형	진허당 부도
광흥사 부도	온정면 덕산리	조선 후기	석종형	완하당 부도(1809) 기암당 부도(1830) 일명선사 부도(19세기)
수진사 부도	평해읍 오곡리	조선 후기(19세기)	석종형	무위선사 부도 몽현선사 부도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5~186쪽의 <표 1> ‘울진지역 불교유물 현황’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울진지역 부도의 제작순서를 살펴보면, 불영사 양성당 부도(1696) → 광흥사 완하당 부도(1809) →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1818) → 광흥사 기암당 부도(1830) → 수진사 무위선사 부도, 몽현선사 부도, 광흥사 일명선사 부도(19C)의 순으로 나타난다.<sup>794</sup>

### 1) 광흥사 부도(廣興寺浮屠)

광흥사는 울진군 온정면 원덕산길 392(덕산리 1107)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사찰이다. 광흥사는 ‘원덕산’ 마을에서 절골로 들어가면 계곡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광흥사의 자세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흥덕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사찰은 근년에 세워진 것이나 원래 광흥사의 터라 한다. 광흥사의 입구 500m 아래에 부도군이 있다.

부도군 좌측에 2기의 부도비가 있으며, 우측에는 4기의 부도가 나란히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또 철책 바깥에는 1개의 부도 기대석이 유존한다. 이중 맨 좌측에 있는 현도선사부도는 최근에 세운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 (1) 기암당 부도(奇巖堂浮屠)

기암당 부도는 좌측에서 첫 번째 부도로 이곳에 있는 것 중 가장 크다. 기대석과 탑신의 二石으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로 높이는 107cm이다. 기대석은 매몰되어 있으나, 평면 방형으로 보인다. 신석은 평면 원형으로 하단이 가장 좁고 복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가 상부에 이르면 다시 좁아진 석종형으로 신부에는 장식이 없다. 상륜에는 약화된 연봉형 보주를 조출하였는데, 장식은 없다. 신석과 보주는 한 돌로 조성되었다. 전

794. 심현용, 2008, 앞 논문, 188쪽

반적으로 치석수법이 단조롭고 정자국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 부도군 중에서는 제작기법이 가장 뛰어나다. 크기는 기대석 길이 74cm×폭 78cm, 신석 높이 91cm×중경 70cm, 보주 높이 14cm×하경 23cm이다.

기암당 부도에는 명문이 없어서 주인공을 알 수 없었으나, 부도 좌측에 있는 2기의 비 중에서 부도와 비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도 바로 옆에 세워진 개석이 있는 비가 이 부도의 비로 추정된다. 이 비신에 음각된 명문 중 ‘기암당대선사지비(奇巖堂大禪師之碑)’와 ‘도광십년 사월일 부도봉안(道光十年四月日浮屠奉安)’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주인공은 기암당이며, 제작 시기는 1830년(순조 30)이다.<sup>795</sup>

## (2) 완하당 부도(翫霞堂浮屠)

완하당 부도는 좌측에서 두 번째 부도로 기대석과 신석의 두 돌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로 높이는 85cm이다. 기대석은 땅에 묻혀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면 장방형으로 보인다. 신석은 평면 원형으로 하단이 가장 좁고 복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가 상부에 이르면 다시 좁아지는 석종형으로 신부에는 장식이 없다. 상륜은 약화된 연봉형 보주를 조출하였는데, 별다른 장식이 없다. 신석과 보주는 한 돌로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신석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기대석 위의 신석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멘트를 발랐다. 치석은 단조롭고 정(丁)자국이 많이 남아있다. 크기는 기대석 길이 66cm×폭 53cm, 신석 높이 76cm×중경 56cm, 보주 높이 7cm×하경 21cm이다.

완하당 부도에는 명문이 없어서 주인공을 알 수 없었으나, 부도 좌측에 있는 2기의 비 중에 부도와 비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맨 좌측에 있는 작은 비가 이 부도의 비로 추정된다. 이 비신에 음각된 명문 중 ‘완하당대선사지비(翫霞堂大禪師之碑)’와 ‘가경십사년 기사이월일 부도봉안(嘉慶十四年己巳二月日浮屠奉安)’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주인공은 완하당이고 제작 시기는 1809년(순조 9)이다.<sup>796</sup>

## (3) 일명선사 부도(逸名禪師浮屠)

부도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이 부도는 우측에서 세 번째 부도로 기대석과 신석의 두 돌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는 높이가 85cm이다. 기대석은 땅에 묻혀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면 방형으로 보인다. 신석은 평면 원형으로 하단이 약간 좁아졌고 복부로 올라가면서 가장 넓어졌다가 상부에 이르면 다시 하단과 같이 좁아진 석종형으로 신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 부도는 상륜부가 생략되어 전체적인 형태는 계란처럼 생겼

795. 심현용, 2005, 위 논문, 110~111쪽

796. 심현용, 2005, 위 논문, 111쪽

으며, 신부의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 현재 기대석 위의 신석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멘트를 발랐다. 크기는 기대석 길이 55cm×폭 50cm, 신석 높이 83cm, 상경 35cm, 중경 45cm, 하경 36cm이다.

제작 시기는 전체적으로 치석이 세련되지 못하고 정자국이 다수 남아있는 등 조각수법이 조잡하고 형태가 정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즉 1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완하당 부도와 기암당 부도보다 늦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797</sup>

## 2)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大興寺址振虛堂浮屠)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는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대흥사지에 남아 있는 조선 후기 진허당 지현(振虛堂知珰)의 석종형 부도이다. 울진읍 대흥리 대흥사지 대웅전이 있었던 곳에서 동남방으로 약 200m 지점 본동 새마을회관 오른쪽 민가 옆의 밭에 있다.

대흥사는 태백산 정봉 아래에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그 후 고려시대 어떤 승려가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이다. 1802년(순조 2)에 예조완문(禮曹完文)으로 사찰 경계에 표지를 세워 구역을 표시하여 절을 수호토록 하였다. 그러나 절은 퇴락하고 대웅전만 남았다가 1963년 울진 동림사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절터만 남아 있다.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지대석 위에 기단석을 동일석으로 각출하였고, 그 위에 종형의 신석을 두었으며, 상륜에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지대석은 평면 8각형의 받침돌로, 그 위에 한 돌로 기단석을 평면 8각형으로 각출하였다. 신석은 하부가 가장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은 종형으로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상륜부는 하부에 1단의 원대(圓帶)를 조각하였고, 그 정면에 연봉형의 보주를 올렸다. 신석과 보주는 1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신석은 총알에 맞았던 흔적이 있고, 곳곳이 파손되었다. 규모는 지대석은 폭 105cm, 높이 10cm이고, 기단석은 폭 84cm, 높이 13.5cm이며, 신석은 높이 109cm, 중경 75cm이다. 보주 높이는 23cm이다.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 앞면 신석에 해서체로 쓰인 세로 한 줄의 음각된 명문이 있는데, 그동안 이 명문은 ‘출칠세손진허당지현지탑(出七世孫振虛堂知珰之塔)’으로 알려져 왔으나, ‘서산칠세손진허당지현지탑(西山七世孫振虛堂知珰之塔)’의 오독(誤讀)으로 밝혀졌다. 즉 ‘서(西)’자가 총탄에 맞아 일부가 깨어졌는데, 밑에 있는 ‘산(山)’자와 함께 두 글자를 붙여서 ‘출(出)’자로 판독했던 것이다.

또한 8각 기단석 정면에 해서체로 세로 7줄의 ‘가경이십삼년무인년사월일립부도(嘉慶二十三年戊寅季四月日立浮屠)’라고 음각된 명문이 새로 확인되어 1818년(순조 18) 4월에

797. 심현웅, 2005, 위 논문, 111~112쪽

세운 진허당 지현의 부도임을 알 수 있다. 금석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도의 주인공은 서산대사의 7세손인 진허당 지현이며, 이것으로 진허당의 계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산대사의 문도 계파가 워낙 많은 까닭에 지현스님의 행적은 추적하지 못하였다.<sup>798</sup>

대흥사지 진허당 부도는 20여 년 전에 도굴을 당해 붕괴된 것을 마을에서 다시 고쳐 세운 것으로, 조선 후기의 양식이지만 치석이 세련되지 못하고, 장식이 전혀 없는 등 각부의 조각수법이 악화되어 형태가 정제되지 않았으나 불영사 양성당 선사 부도를 많이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 3) 불영사 부도(佛影寺浮屠)

불영사 부도는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조선 후기 양성당 선사 혜능(養性堂禪師惠能)의 부도로, 혜능 입적 후 다비를 하자 사리가 나와 부도를 건립하였다. 양성당 선사의 부도 비문은 조선 후기 학자 최석정(崔錫鼎)이 지었다.

불영사 부도는 지대석, 기단석, 탑신의 3석으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로서, 전체 높이 198cm이고, 탑신의 폭은 83cm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방형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기단석을 각각 별도의 돌로 놓고 그 위에 일석으로 만든 종형의 신석과 보주형 상륜을 올렸다.

지대석은 대강 치석한 방형 대석으로 별다른 조식이 없다. 기단석의 옆면에는 8판의 중복련(重伏蓮)을 양각으로 장식하였으며, 상부에 원형의 탑신 받침을 호형으로 각출하여 신석을 받고 있다. 신석은 평면 원형으로서 하단이 약간 좁은데, 북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가 상부에 이르면 다시 하단과 같이 좁아진다. 신부 측면에는 장식이 없고 하부에는 6판의 양련을, 상부에는 14판의 복련을 장식하였으나 매우 형식적이며, 그 윗면에는 호형 1단의 원형 받침을 각출하여 상륜을 받았다. 상륜 하부에는 1단의 원대(圓帶)를 조각하였고, 그 정면에 연봉형의 보주를 조출하였는데 장식은 없다. 신석과 보주는 동일석으로 조성되었다.

부도비의 비신 앞면, 뒷면에 명문이 음각되었으며, 글씨는 해서체이다. 글자의 크기는 앞면의 경우 2.5×2.5cm로 거의 모두가 비슷하나, 뒷면의 경우에는 3.5×3.5cm의 크기도 있다. 금석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양성당 선사의 법명(法名)은 혜능이고, 자는 중열(仲悅)이며 세속의 성은 남씨로, 그 선대가 고려 때부터 선사(仙槎)에 우거하여 후예들이 이를 관향으로 삼았다. 대사로부터 고조, 증조, 조 등 5대를 연이어 과거에 급제한 명문 집안이며, 모친은 행주전씨로 명망 가문이다. 모친이 꿈에 하늘의 신선을 보고 대사를 잉태했는데, 태어난 뒤에 이름을 몽선(夢仙)이라 한

798. 심현용, 2005, 앞 논문, 108쪽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대사는 어려서부터 자질이 곧아 말을 함부로 아니하였고 형제간에 화목하게 처신하며 항상 출세의 뜻을 가지고 있어 부모가 기이하게 여겼다.

열두 살에 응철장로(應哲長老)를 쫓아 출가하여 계를 받고 8년간 정진하여 모든 불경을 통달한 뒤 천조대사(天照大師)에 나아가 묻고 또 호구당(虎丘堂)에게서 수행하여 크게 깨달아 막히는 데가 없었다. 성품은 침착하고 인후하여 보시하기를 기꺼이 하였으며, 계율을 엄히 지켰고 평생을 명산 고찰을 찾아 주류하기 좋아하여 두류산, 금강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소백산 등 그의 발자취가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는 스승을 찾아 도를 강론하여 초연한 넓고 큰 뜻을 가지고자 함이리라.

어느 날 홀연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탄식하기를 ‘도를 구하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 사람이 근본을 돌이키지 않는 것은 어찌 일찍 떠난 고향에 돌아감을 잊는 것과 다를 바가 있으리오.’ 하며 마침내 불영사로 돌아와 머물며 수도하는 집에 현판을 달아 양성당이라 했다. 또 그곳에서 시를 읊었는데, 모두다 염불삼매 중에서 자연히 흘러나온 것 같았으니 그 한 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론을 마치고 염불에 날이 저물면  
밝은 달 솔바람 타고 사립문을 닫아거네.  
고요하게 살면서 고요하게 흥취를 자득하니  
온 경내 고요하여 꿈결인 듯 아늑하네.

이 시를 읽으면 마치 내가 부처와 연꽃 사이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한다. 병자 12월 17일에 앓은 채 입적하니 세속의 나이는 75세요, 법랍 64세이다. 다비하는 날 서기(瑞氣) 한 줄기 중천에 뻗쳐 수일 만에야 사라지고 드디어 금빛 나는 사리 3과가 나왔기에 부도를 절 동쪽 수십 보 지점에 세우고 그의 수제자 천옥(天玉)대사가 장차 비석을 세워 양성대사의 행적(行蹟)을 기록코자 홍우해(洪于海)를 통하여 내[최석정]에게 비문을 청하니 우해와 대사는 마치 주나라 문왕과 태전(太顛)과 같은 관계이므로 대사에 대한 사실 모두 기억하고 있어 나에게 상세히 말하므로 내가 듣고 가상하여 비문을 쓰고 명(銘)하노라.

부처님의 오묘한 뜻은 성(性)을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요점인데  
대사는 능히 일찍 깨우쳐 깊은 이치 꿰뚫어 보고  
참 가르침 더욱 터득하여 삼승(三乘)의 도를 극명히 밝히셨네.  
아! 우리 대사여, 후세에 족히 징표가 되리.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최석정 지음

건륭 3년 2월 일 세움<sup>799</sup>

부도비에 이끼가 심하게 끼어 명문을 제대로 판독할 수 없었는데, 「양성당 선사혜능 부도비명(養性堂禪師惠能浮屠碑銘)」이 최석정의 문집인 『명곡집(明谷集)』에 실려 있어 혜능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명문에 의하면, 양성당은 1696년(숙종 22) 12월 17일에 75세로 입적하였으며, 불영사 부도는 혜능이 입적한 1696년에 건립하였으나, 부도비는 1738년(영조 14) 2월 18일에 설치한 것을 알 수가 있다. 1985년 8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62호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양성당 선사에 관한 전설에 의하면, 인현왕후는 폐출된 뒤 5년이란 세월을 눈물로 보내다가 마침내 자결을 결심하고 독약 그릇을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다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한 백발 노승이 나타나 천축산 불영사에 있는 중이라면서 3일만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지자, 인현왕후가 이를 매우 기이하게 여겨 3일을 더 기다렸더니 과연 왕후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었다. 그 후 숙종이 이 이야기를 듣고 꿈속의 노승을 찾으니, 1696년에 세상을 떠난 양성당대사의 화상과 같으므로, 부처님의 은공을 갚기 위해 불영사를 중심으로 한 사방 10리 안에 있는 토지를 불영사에 시주하였다 한다.

#### 4) 수진사 부도(修真寺浮屠)

수진사는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에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의 말사로 천축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수진사의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신문왕 때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기도 하였지만 곧 중창하여 사세를 유지하여 오다가 1969년 3월에 중수하였다. 수진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모두 사지로 추정된다. 수진사 부도는 대웅전에서 북동으로 약 50m 떨어진 승탑원에 2기가 있다.

##### (1) 무위선사 부도(無爲禪師浮屠)

무위선사 부도는 기대석과 탑신의 두 돌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든 석종형 부도로 높이는 67cm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의 기대석을 설치하고 종형의 신석 위에 한 돌로 보주를 만들었다. 지대석과 기단석을 겸한 기대석은 땅에 묻혀있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면 장방형으로 보인다. 신석은 앞면이 넓고 측면이 좁은 평면 타원형으로 하단이 약간 좁고 북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가 상부로 가면서 하단과 같이 좁아진 석종형으로 신부에는 장식이 없으며, 신석 중앙에 가로로 ‘무위선사지부도’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

799. 심현용, 2005, 「천축산 불영사의 신자로 고찰」 『불교고고학』, 위덕대학교 박물관, 34~35쪽

공을 알 수가 있다.

상륜부는 연봉형이 약화된 보주를 각출하였는데, 보주의 윗면 가운데에는 작은 홈(깊이 0.5cm)을 팠다. 신석과 상륜은 한 돌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기대석과 신석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크기는 기대석 길이 70cm×폭 46cm, 신석 높이 56cm×중경 53cm, 보주 높이 8.5cm×하경 20cm이다. 제작 시기는 치석이 세련되지 못하고 각 부의 양식이 약화되어 형태가 정제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조선 후기, 즉 19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sup>800</sup>

## (2) 몽현선사 부도(夢現禪師浮屠)

몽현선사 부도는 무위선사 부도의 좌측에 약 65cm 떨어져 위치한다. 기대석과 탑신의 두 돌로 구성되었으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로 높이는 84cm이다. 기대석은 매몰되어 있어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평면 부정 장방형으로 보인다. 신석은 평면 원형으로 하단이 가장 좁고 복부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다가 상부로 이르면 다시 좁아진 석종형으로 신부에는 장식이 없으며, 신석 앞면에 타원형(가로 30cm×세로 40cm)으로 편평하게 치석한 후 세로로 ‘몽현선사’라는 명문을 음각하였다. 상륜은 약화된 연봉형의 보주를 각출했으며, 별다른 장식이 없다. 신석과 보주는 한 돌로 조성하였다. 현재 신석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대석과 신석 사이에 시멘트를 발랐다.

크기는 기대석 길이 72cm×폭 44cm, 신석 높이 71.5cm×중경 46cm, 보주 높이 10.5cm×하경 18.5cm이다. 제작 시기는 치석의 상태가 조잡하고 각 부의 양식이 약화되어 형태가 정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즉 19세기로 추정되며, 옆에 있는 무위선사 부도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다.<sup>801</sup>

## 2. 석탑(石塔)

불교에서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축조물이다. 탑에는 불사리를 봉안하는 불탑과 승려의 유골을 보관하는 승탑으로 크게 나뉜다. 또 불탑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석탑, 목탑, 전탑, 모전석탑, 금동탑 등으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석탑, 중국에서는 전탑, 일본에서는 목탑이 특히 발달하여 탑의 주류를 이루었다.

울진 지역에는 10기의 석탑 및 석탑재가 산포하고 있는데, 이중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청암사지 삼층석탑 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9기는 모두 고려시대에 건립되고 있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찰이 창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울진지역에서 나타나는 석탑의 세부 양

800. 심현웅, 2005, 위 논문, 109쪽

801. 심현웅, 2005, 위 논문, 109~110쪽

식상의 특징은 규모의 소형화, 기반부 표현의 약화, 옥개석의 형태변화, 석탑부재의 단일화, 옥개석과 탑신석을 동일석으로 구성하는 결구수법 등 정형화된 고려시대 석탑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는 지방색이 가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양식상의 특징은 울진지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이 시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즉, 통일신라에 조성된 청암사지 삼층석탑은 신라의 중심인 경주를 벗어나 지방에 건립된 것이지만 중앙의 양식과 다른 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조성된 석탑들도 각 지방에 따라 특이하게 나타나는 지방색을 보이지 않고 전형적인 신라계 석탑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울진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가까워 신라문화가 더 강하게 남아있었고, 고려시대의 중심인 개경이 지역적으로 멀어 고려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울진지역에 늦게 파급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울진지역 석탑들의 제작순서를 살펴보면, 청암사지 삼층석탑[통일신라 9C 후반] → 불영사 삼층석탑·직산리 삼층석탑[고려 초] → 정림사지 석탑[고려 전기] → 대천사지 삼층석탑[고려 중기] → 장재사지 삼층석탑·광흥사 석탑[고려 중·후기] → 수진사 석탑·광대사지 삼층석탑·배잠사지 삼층석탑[고려 후기]의 순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자료인 석탑에 의하면, 청암사가 울진지역에서 가장 빨리 창건된 사찰이다.<sup>802</sup>

<표 67> 울진군의 석탑

석탑	위치	제작시기	비고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근남면 구산리	통일신라 후기 (9세기 후반)	1968년 12월 19일 보물 제498호로 지정, 구산리사지[일명 청암사지]에 있음
불영사 삼층석탑	금강송면 하원리	고려 초기	19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로 지정
직산리 삼층석탑	평해읍 직산리	고려 초기	현재 없음
정림사지 석탑재	울진읍 정림리	고려 전기	삼층석탑으로 추정
대천사지 삼층석탑	울진읍 읍내리	고려 중기	대천사지에 있던 삼층석탑을 1963년에 동림사로 이설
주인리 삼층석탑	북면 주인리	고려 중·후기	주인리사지[일명 장재사지]에 있음
광흥사 석탑재	온정면 덕산리(절골)	고려 중·후기	삼층석탑으로 추정
수진사 석탑재	평해읍 오곡리	고려 후기	삼층석탑으로 추정
광대사지 삼층석탑	매화면 길곡리	고려 후기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건
배잠사지 삼층석탑	근남면 구산리	고려 후기	삼층석탑으로 현재는 도굴당하고 없음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 『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5~186쪽의 <표 1> ‘울진지역 불교유물 현황’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802. 심현용, 2008, 「울진지역의 불교문화 연구」 『경주문화연구』10,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원, 186~187쪽

## 1) 광대사지 삼층석탑(廣大寺址三層石塔)

광대사지 삼층석탑은 울진군 매화면 길곡리 안광대골 광대사지에 있었으나, 지금은 국립 경주박물관에 있다. 탑은 청색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평면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이다. 탑의 높이는 1.217m이다. 지대석을 겸한 기단부는 하나의 돌로 되어있는데, 전형적인 석탑의 기단부와는 다르게 상부에 각형 3단괴임을 각출하여 옥개석을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이다.

탑신부는 3층으로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별도로 하나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각 층의 탑신석 높이는 위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줄어 균형의 흐트러짐이 보인다. 각 층 옥개석 받침은 각형 4단이며, 옥개석 상면에는 탑신받침이 없다. 옥개석 지붕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처마 밑은 수평이며,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옥개석의 형태가 둔중한 느낌을 준다. 상륜부는 노반과 양화, 보주만 남아있다. 지금 광대사지에는 사찰에 사용되었던 석재들과 일부 탑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탑신면석 2개가 더 유존한다. 2개의 탑신면석은 청색화강암으로 되었으며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탑과 거의 유사함으로 보아 쌍탑으로 건립된 것 같다. 광대사지 삼층석탑의 제작시기는 신라석탑의 전형양식을 계승한 고려 후기에 건립된 작품으로 추정된다.<sup>803</sup>

## 2) 광흥사 석탑재(廣興寺石塔材)

광흥사 석탑재는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광흥사에 있는 고려 중·후기의 석탑재이다. 광흥사 석탑재는 기단갑석 1매, 옥개석과 탑신석이 한 돌로 제작된 석재 1매만이 남아있으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기단갑석은 한 돌[길이 129cm×두께 12cm]로 되어 있으며, 평면 방형으로 하부에는 부연이 없다. 윗면은 약간의 경사를 가지며 합각선에는 우동이 각출되었고 각호형 2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이로 보아 기단부는 원래 1층으로 판단된다.

또 탑신석과 옥개석이 한 돌로 되어 있는 석재는 파손이 심하여 몇 층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층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재의 하부는 옥개석이고 상부는 탑신석으로, 하부의 옥개석 아래에는 탑신석이 있었을 것이며 상부의 탑신석 위에는 옥개석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존하는 탑재의 체감비율로 보아 3층 이상의 탑은 아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석재는 2층의 옥개석과 3층의 탑신석일 것 가능성이 높다. 옥개받침은 각형 4단이고 옥개석 윗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옥개석 지붕은 낙수면의 경사가 둔중하며 처마 밑은 수평이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안쫓림으로 모각되었다.

남아있는 탑재가 너무 적어 추정하기 쉽지 않으나, 1층 기단을 구비한 평면방형의 삼층

803. 심현용, 2005, 위 논문, 100쪽

석탑으로 판단되며, 탑신석과 옥개석을 한 돌로 구성한 것은 고려식 석탑의 양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고려 중반이후에 유행하는 양식이다. 제작 시기는 통일신라 또는 고려 초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결구수법과 부연이 없는 점, 옥개석 지붕이 둔중한 점 등으로 보아 고려 중·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04</sup>

### 3) 대천사지 삼층석탑(大川寺址三層石塔)

대천사지 삼층석탑은 현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동림사(東林寺) 경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 중기에 제작된 석탑이다. 삼층석탑은 원래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오로동에 있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대천사(大川寺)에 있었던 것으로 절은 없어지고 탑만 남았던 것을 1963년 동림사 대웅전 앞에 이설하였다. 삼층석탑은 ‘대천사지 삼층석탑’, ‘노음리 삼층석탑’, ‘포교당 내 삼층석탑’ 등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기단은 탕주와 양 우주가 있는 면석 위에 있고, 2단의 괴임이 있는 갑석을 끼워서 탑신부를 받치고 있다. 세 개의 옥신의 양 우주는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며 옥개는 4단 받침, 2단 괴임을 하였는데 파손이 심하다. 상륜부는 없고, 방형찰주공(方形擦柱孔)이 3층 옥개에 박혀져 있다. 현재의 전체 높이는 2.4m이다. 석탑은 지대석 위에 단층기단을 놓고 그 위에 삼층의 탑신부를 올린 형태이며, 상륜부는 남아 있지 않다. 뒤에 보충한 것이 확실한 지대석은 2매의 판석으로 구성하였으며, 규모는 너비 167.5cm, 높이 13cm 정도이다.

기단중석은 4매의 판석을 이용하였으며, 감입식의 결구 방식을 채택했다. 북쪽과 남쪽은 넓은 판석에 1탕주와 양우주를 새겼고, 동쪽과 서쪽은 그 사이에 판석을 끼워 넣어 탕주만 새기고 우주는 남북쪽 판석의 튀어나온 부분으로 대신했다. 이 가운데 북쪽, 즉 대웅전 쪽 판석은 새로 만들어 세운 것이다. 기단중석은 너비 94.5cm, 높이 50cm 정도이며, 우주 폭 10.5cm 가량, 행주 폭 11cm 가량이다. 기단갑석은 너비 118cm, 높이 16.5cm로 상면에 4.5cm의 2단 각형 꺾임이 치석되어 있다. 네 모서리에는 우동이 선명하며, 밑면에는 깊은 부연이 표현되어 있다.

초층탑신석은 하부 너비 57.5cm, 상부 너비 53cm로 약간 민흘림 형태를 이루고 있고, 각 모서리마다 12.5cm 가량의 우주가 표현되어 있다. 높이는 52cm 정도이다. 초층옥개석은 너비 91cm, 높이 34.5cm로 하면에 4단의 층급받침이 상단에는 2단의 탑신 꺾임이 표현되어 있다. 2층 탑신석은 너비 45.5cm, 높이 19cm로 각 모서리에 10.5~11cm의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2층 옥개석은 너비 78cm, 높이 35cm로 하면에 4단의 층급받침이 치석되어 있다. 3층 탑신석은 너비 36cm, 높이 16cm로 각 모서리에 폭 8cm의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옥개석은 너비 63cm, 높이 23cm로 하면에 3단의 층급받침이 치석되어 있으며 상면에 방형 찰주공이 있다.

804. 심현용, 2005, 위 논문, 103쪽

전체적으로 층급받침들은 그리 예리하지 못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옥개석 밑면은 평행을 이루고 윗면은 전각부에서 크게 반전한다. 낙수면의 물매는 깊으며, 파손이 심해서 분명하지 않지만 끝부분에서 말려 올라가는 현수곡선을 그리는 것 같다. 옥개석 밑에는 절수구가 표현되어 있다.<sup>805</sup>

2011년 11월에는 근남면 노음리 일원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대천사 삼층석탑과 관련된 석재 2매가 발견되었다. 당시 발견된 석재 중 1매는 길이 1.7m, 너비 0.2m 크기의 하층 기단면석으로 추정되며, 한쪽 끝부분이 유실되어 있고 면에는 탕주 1개와 우주 1개가 모식 되어 있다. 또 다른 석재 1매는 길이 1.6m, 너비 0.6m 크기로 하대저석으로 추정되며, 한쪽이 반타원을 이루는 장방형의 평면을 띠고 있고, 면에 문양이나 문구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당시 발견된 석탑 부재는 현재 대천사지 삼층석탑의 보호 철책 안으로 옮겨져서 보관되고 있다.

#### 4) 배잠사지 삼층석탑(盃岑寺址三層石塔)

배잠사지 삼층석탑은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고려 후기 삼층석탑이다. 배잠사지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m 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굴당하고 없다. 원래 배잠사지 삼층석탑이 있었던 자리는 현재 기단 갑석이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약 15m 떨어져 있었던 곳이라 한다.

현 기단 갑석[두께 6cm, 112×82.5cm]은 주초석으로 추정되는 자연석 화강암 위에 흙으로 덮여 있고, 파손이 심하며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 청색 화강암으로 세웠고, 평면 방형의 일반 삼층석탑이다. 가로 길이는 잔존 형태로 보아 갑석의 크기가 가로, 세로 112cm의 정방형이다. 1981년 당시 없어진 탑재가 많아 지표상에 기단 갑석이 나와 있었고, 탑신부는 도괴되어 초층 탑신과 지붕돌[옥개석] 세 개가 남아 있는 것을 복원하였다고 한다. 복원한 높이는 96.5cm 이었다 전한다.

기단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전반적인 균형으로 보아 단층 기단으로 추정되며, 1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기단 갑석은 탑신 받침 네 모퉁이에 대각선으로 1조씩의 반원형 용기선을 이루어 합각선을 뚜렷하게 각출하였으며, 윗면은 경사가 젖고 중앙에 각호 2단의 탑신 받침을 조출했다. 갑석 하단에 부연은 없다.

탑신부는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으며, 탑신석과 지붕돌이 각각 별도의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초층 탑신은 각 면에 양 우주(隅柱)가 얹게 모각되었고, 윗면에는 14×12cm, 깊이 8.5cm의 큼직한 방형 사리공이 있다. 또한 지붕돌이 두꺼워 낙수면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한데,

805. 심현웅, 2005, 위 논문, 98~99쪽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미미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처마 밑은 수평이다.

각층 지붕돌 받침은 각형 3단이고, 일반적으로 지붕돌 상부에는 탑신 받침이 있는데 배잠사지 삼층석탑에서는 탑신 받침이 생략되었다. 그중 3층 지붕돌은 파손이 많이 되었고, 지붕돌 상부에는 2단의 고임이 있으며, 윗면 중앙에 3×4cm, 깊이 4cm의 찰주공이 있다. 탑의 상륜부는 모두 분실되었다.

현재 석탑이 남아 있지 않아 1981년에 이 지역을 조사한 보고 자료를 통해 배잠사지 삼층석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두 장의 사진 자료가 유일하게 배잠사지 삼층석탑의 양식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배잠사지 삼층석탑은 비록 많은 부재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없지만, 제작 시기는 지붕돌에서 둔중감이 보이고, 균형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고려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06</sup>

## 5) 불영사 삼층석탑(佛影寺三層石塔)

불영사 삼층석탑은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에 있는 고려 초기 삼층석탑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지정되었다.

불영사 삼층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현 높이는 3.21m로, 일명 ‘무영탑(無影塔)’이라 불린다. 기단부는 상하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석은 새로 만들었다. 하층 기단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는데, 하층 기단 저석과 함께 붙여 만들었다. 각 면석에는 우주와 탕주 1주를 모각하였다. 하층 기단 갑석은 4매의 석재로 조립되었는데, 서북쪽 모서리가 파손되었으며, 서남쪽의 1매는 깨어져 분리되어 있다. 상층의 경사는 심한 편이고 각호각형 3단의 상층 기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으나 마모가 심하다. 하부에는 부연이 없고, 상층 기단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다. 각 면석에는 우주와 탕주 1주를 모각하였다.

상층 기단 갑석은 2매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남쪽과 서쪽 갑석 끝이 파손되었다. 윗면의 경사는 약하고 각호각형 3단의 초층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부연이 없다. 탑신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신석과 지붕돌[옥개석]이 각각 별도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각층 탑신석의 면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고 지붕돌받침도 각층 모두 각형 4단이다. 각층 지붕돌 지붕에는 각각 호형 2단의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지붕돌의 낙수면 경사는 약간 급하며, 처마 밑은 수평이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경쾌하고 날렵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상륜부는 노반이 없고 양화, 보개, 복발, 보륜, 보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놓여 있다. 상륜부를 이루는 부재의 석질이 탑신부와 기단부의 석질과 다르다.<sup>807</sup>

806. 심현용, 2005, 위 논문, 100~101쪽

807. 심현용, 2005, 위 논문, 97~98쪽

불영사 삼층석탑은 원래 황화실 옆 동쪽에 무너져 있었다가 1977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 복원되었으나, 불영사 수장고를 지으면서 원래 탑이 있었던 지역에서 탑의 기초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원래의 위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979년 1월 25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135호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불영사 삼층석탑의 제작 시기는 부연이 없고 아담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른 균형을 이루고 있어 신라 석탑의 전형 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 전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울진 지역에서 현존하는 고려시대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되어 이 지역의 석탑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6) 수진사 석탑재(修真寺石塔材)

수진사 석탑재는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수진사에 있는 고려 후기의 석탑 유물이다. 오곡리 천축산 중턱에 위치한 수진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모두 사지로 추정된다. 수진사는 대웅전 등 경내 건물이 모두 근년의 것이나, 부도와 석탑재 등의 석조물들이 남아 있으며, 와편이 산재해 있다.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하나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절은 1963년에 중건되었다. 석탑재는 지붕돌[옥개석]이 남아 있으며, 그 밖에 석등 지대석과 간주석 일부가 남아 있다.<sup>808</sup>

수진사 석탑재의 지붕돌 2매는 파손이 심하며, 1매는 지붕돌 받침이 각형 3단이고, 다른 1매는 각형 4단이다. 지붕돌 지붕의 낙수면 경사는 완만하면서도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지붕돌 상부에는 각형 1단의 탑신 받침이 각출되어 있다. 이 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잔존 부재의 형태 및 규모와 체감 비율로 보아 소형 평면 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현재 지붕돌 2매는 대웅전 앞마당에 다른 석조물들과 뒤섞여 있으며, 지대석과 기단부의 여러 석재들은 대웅전의 계단으로 사용되었다.

수진사 석탑재의 일부분인 탑재만으로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는 무리이다. 그러나 지붕돌은 받침이 3~4단으로 혼용되어 있고, 둔중하며, 규모가 소형인 점 등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서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809</sup>

## 7)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蔚珍九山里三層石塔)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은 일명 청암사지 삼층석탑이라고도 한다.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구산리사지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으로 보물 제498호로 지정되었다. 구산리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절터이며, 청암사는 근남면 구산리 탑평동에 있던 절이다.

808.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1쪽

809. 심현웅, 2005, 앞 논문, 103~104쪽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든 2층 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으로, 현 높이는 3.49m이다. 기단부는 지대석 위에 상하 2층의 기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하층 기단 저석과 하층 기단 면석을 한데 붙여 4매의 석재로 조립하였는데, 하층 기단 면석의 각 면에는 탕주 1주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하층 기단 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하였으며, 위쪽의 경사는 심한 편이고, 네 모서리에 합각선이 나타나 있다. 윗면에는 호각형 2단의 상층 기단 면석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층 기단 면석은 4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으며, 각 면에 탕주 1주와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상층 기단 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래 면에는 각형 1단의 부연이, 윗면에는 약간 경사진 가운데 호각형 2단의 초층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별도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각층 탑신석의 각 면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1층 탑신 남면에는 이중 용기선의 직사각형 문비(門扉)가 조식되어 있다. 각층의 탑신석 높이는 위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줄어들어 균형이 흐트러져 있다. 각층 지붕돌의 받침은 각형 5단이며, 지붕돌에는 각형 2단의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며 처마 밑은 수평이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경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2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붕돌은 파손이 심하다. 특히 2층 지붕돌에는 원형의 사리공이 뚫려 있다. 상륜부는 노반만 남았는데, 3층 지붕돌 위에 원형의 찰주공이 있다.<sup>810</sup>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은 1968년 복원을 하였고, 그해 12월 19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 해체, 수리하였으며, 2006년에는 주변을 발굴 조사하여 금동 불상 및 철마, 중국 동전, 명문기와, 자기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귀중한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은 울진 지역에 유존하는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울진 지역의 불교사와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 8) 정림사지 석탑재(淨林寺址石塔材)

정림사지 석탑재는 울진군 울진읍 정림1리 절골 정림사지에 있는 고려 전기의 석탑재이며, 정림사지는 고려시대 정림사가 위치하였던 절터이다. 정림사의 사적에 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sup>811</sup> 『범우고(梵宇攷)』<sup>812</sup>를 통해 18세기 후반까지 사세를 유지하였던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사역은 농경지로 조성되어 원형을 알기 어려우며 석조물, 와편, 석탑재 등이 산포하고 있다.

810. 심현용, 2005, 앞 논문, 96~97쪽

811. 이행 외, 1996, 앞 책, 588쪽

812. 『범우고』 원춘도, 평해 사철[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2020년 2월 24일], 125쪽

정립사지 석탑재는 하층 기단 저석과 하층 기단 면석을 동일석으로 만든 석재 2매, 하층 기단 갑석 1매, 상층 기단 면석 3매, 지붕돌[옥개석] 1매가 흩어진 채 남아 있다. 하층 기단 저석과 동일석으로 만든 하층 기단 면석은 2매 모두 각 면에 탕주 1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길이 126cm, 높이 25cm이다. 이로 보아 없어진 2면의 면석에는 탕주 1주와 양 우주가 모각되었고, 그 사이에 현재 남아 있는 면석을 끼워서 조립한 것 같다. 지붕돌 지붕은 처마 밑은 수평이며, 낙수면은 현재 파손이 심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반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층 기단 갑석은 길이 130cm로 1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면은 경사가 약한 편이며, 호각형 2단의 상층 기단 면석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각 면은 파손이 심하다. 상층 기단 면석은 3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1매의 면석은 탕주 1주와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길이 104cm, 높이 59cm이다. 다른 1매는 탕주만 1주 모각되어 있으며, 길이 78cm, 높이 59cm이다. 나머지 1매는 탕주 1주와 우주 1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길이 90cm, 높이 59cm이다. 높이가 모두 59cm로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층의 기단 면석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상층 기단 면석에는 탕주 1주와 양 우주가 모각되었다. 지붕돌은 가장자리가 모두 파손된 채 1매가 남아 있다. 현존 길이는 88cm, 두께는 34cm이다. 지붕돌의 받침은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석탑은 남아 있는 각 석탑재의 형태 및 규모나 체감 비율로 보아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2층 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일반형 삼층석탑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작 시기는 석탑재 일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나, 전반적으로 신라석탑의 전형적 양식을 잘 계승한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추정된다. 양식상으로는 대천사지 삼층석탑보다 약간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sup>813</sup>

## 9) 주인리 삼층석탑(周仁里三層石塔)

주인리 삼층석탑은 울진군 북면 주인리에 있는 고려시대 삼층석탑으로 주인리 사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장재사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인리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장재산의 북편 골짜기에 있어 장재사라는 사명(寺名)이 전해지는 절터이다. 현재 주인리사지에는 석탑과 석불이 남아있으며, ‘장재사지’라고도 불린다.

현재 주인리사지에는 주인리 삼층석탑과 주인리 석불좌상이 남아있으며, 남은 유물로 보아 장재사는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로 보인다. 장재사는 장재산 북쪽 아래에 남향을 하여 장재를 바라보며 건립된 산지형 가람으로 지형에 따라 축대가 정연하게 축조되어 있다. 절터 앞의 남쪽에는 주인리 삼층석탑이 철책으로 보호되어 있다.

813. 심현용, 2005, 앞 논문, 102~103쪽

주인리 삼층석탑은 단층 기단에 옥신석과 옥개석이 1점씩 남은 것을 다시 쌓은 것으로, 탑의 재료는 화강암이고 높이는 1.48m이다. 기단부는 지대석 위에 단층으로 되어있으나 4매로 짜인 지대석은 교란된 상태이다. 기단 면석은 4매석인데, 각 면의 재질이 다르고 우주나 탕주의 표현이 없다. 판석을 이용하여 조립하였고, 면석 위에 기단 갑석이 한 돌로 되어 있다. 갑석은 부연 없이 중앙에 탑신 받침만 2단을 모각하였다.

탑신부는 2층의 탑신석과 1층의 지붕돌만 남아 있다. 처음에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탑신석과 지붕돌은 각각 별도의 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탑신석은 1층과 3층의 것이 결실되었고 2층의 것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탑신석의 높이는 32cm인데 뒷면 하단부가 깨져 있다. 몸돌은 한쪽이 부서져 다른 돌을 끼워 맞춘 상태이다. 지붕돌은 2층과 3층의 것은 결실되었고 1층의 것만 남아 있다. 높이는 23cm이다. 지붕 받침은 4단의 층급 받침을 하고 있고, 윗부분에도 2단의 몸돌 받침이 새겨져 있는데, 폭에 비해 높이가 높은 편이다.

지붕돌 윗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지붕돌 모서리 전각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 풍경을 달았던 흔적을 알 수 있다. 지붕돌 지붕은 낙수면 경사가 약간 급한 편이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둔탁한 느낌이다.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고 없다.

주인리 삼층석탑의 옛 사진이 남아 있는데, 사진상에는 1층, 2층, 3층의 지붕돌 전부와 상륜부의 노반, 복발이 남아 있다. 지붕돌은 올라갈수록 얇아지고, 특히 3층 지붕돌은 1층과 2층 지붕돌 낙수면의 경사가 급한 데 비하여 완만하며 추녀도 1층과 2층보다 전각에 이르러 반전이 크다. 현재 각 방향의 면석은 미미하나 위는 좁고 아래가 넓은 상협하광(上狹下廣)의 형태로 이뤄져 있다. 현재는 각 면석 모두 상하가 바뀌어 있다. 3면의 면석은 우주와 탕주가 모각되어 있지 않고 평평한데, 서쪽 면석만 양 우주와 탕주 1주가 모각되어 있으며 색깔도 다른 석재와 달리 흰색에 가깝고 마멸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후대에 보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주인리 삼층석탑은 비록 많은 부재가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은 파악할 수 없지만 부분적인 양상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옛 사진으로 보아 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한 석탑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sup>814</sup>

## 10) 직산리 삼층석탑(直山里三層石塔)

직산리 삼층석탑은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직산리사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고려 초기 삼층석탑이다. 직산리 남산마을 서쪽에 있는 탑산골 골짜기 일대가 직산리 사지로, 1980년 초 까지도 탑이 남아 있어 남산마을 주민들이 탑돌이를 하기도 하였으나, 보존사라는 태고종 사

814. 심현용, 2005, 위 논문, 99~100쪽

찰이 세워지면서 직산리 삼층석탑도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보문사도 폐사되고 2000년경에 개인 불당이 세워져 있다.<sup>815</sup>

직산리 삼층석탑을 도난당하기 전의 기록과 사진을 토대로 살펴보면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목조 건축의 형태를 띤 평면 방형의 백제계 삼층석탑이다. 기단부 갑석만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단부의 형태는 알 수 없고, 2단의 꺾을 각출한 갑석 위에 탑신부를 세웠다. 기단 갑석 윗면은 각호형 2단의 초층 탑신 받침이 조출되어 있으며, 약간의 경사가 있다. 탑신부는 3층으로,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별도의 한 돌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 탑신석의 각 면에는 두 개의 우주가 얹게 모각되어 있으며, 탑신석 높이는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며, 3층 탑신석은 결실되었다.

직산리 삼층석탑의 각 층 지붕돌 받침은 모두 3단인데, 1단과 3단은 각형이고, 2단은 호형의 형태를 취하였다. 각 층 지붕돌 지붕 윗면에는 1매의 판석으로 된 각형 1단의 탑신 받침이 별석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지붕의 낙수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다가 끝에 와서 완만하다. 추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 전각에 이르러 약간의 반전을 보이며, 처마 밑도 전각에 이르러 미미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 낙수면 하부가 안으로 굽어 있는 등 목조 건축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붕돌의 형태는 둔중한 느낌을 준다. 상륜부는 노반, 복발, 양화만이 남아 있다. 노반, 복발과 양화에는 약 5~6cm 크기의 원형 찰주공이 있다.

직산리 삼층석탑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다. 기단부는 1매의 판석으로 된 갑석만 확인되었고, 그 아래는 땅에 묻혀 알 수 없지만, 탑의 균형적인 비례를 감안할 때 기단부는 단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붕은 3층 모두 3단 꺾임인데, 모두 제2단을 사분도(四分圖) 물딩형으로 하였고, 낙수면 아래도 내곡(內曲)하는 등의 공예탑임이 주목된다. 직산리 삼층석탑은 결국 수법에서 부재의 개별화와 지붕돌받침에서 목조 건축의 공포를 모방한 형태 등 목조 건축의 양식을 반영한 백제계 석탑으로,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sup>816</sup>

## 제4절 불상과 불화

### 1. 불상(佛像)

불상은 부처, 곧 석가여래의 모습을 조각이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815. 울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앞 책, 263쪽

816. 심현용, 2005, 앞 논문, 101~102쪽